군 포교 · 순례…올해도 승가결사체 '풍성'

조계종 교육원, 인증서 수여
신규 단체 7곳·재인증 18곳
범해 스님 "사회 이바지 기대"
결사체 활동 공유 시간도 가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교육원장 범해 스님(오른쪽)이 신규 승가결사체로 인증된 '동불전법단' 대표 동진 스님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이 각계각층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결사체 25곳을 선정해 종단 인증서를 수여했다.

교육원은 2월 2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4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인증단체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신규 단체는 7곳이며, 18개 단체를 재인증했다. 교육원은 승가결사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 단체에 승려연수교육 점수 50점을 인증하고, 종단보조금을 지원한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연수인증 제도'는 전법교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 7회를 맞았다.

올해 첫 인증 단체는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계승해 역사·환경·문화재 등을 순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상월삼조회(대표 법원 스님)'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소복소복(대표 반야 스님)' △울력전법을 실천하는 '어울림전법단(대표 선지 스님)'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지원할 '동불전법단(대표 동진 스님)' △군장병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 포교에 앞장서는 '호국붓다(대표 세광 스님)' △계층별 출가안내를 기획해 출가진흥에 기여할 '네오(대표 여옥 스님)' △염불의례 교육·연수로 지역 신행활동을 강화할 '중악염불원(대표 덕조 스님)'이 선정됐다.

재인증 단체는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어린이·청소년), 마음쉬는곳(호남지역 청년포교), 세간해연구소(명상교육지도), 자비나눔(교도소·취약계층), 내포전법단(문화활동·캠프), 다르마로드(순례·강의·참선), 안양계(청소년 교화), 영차영차(청소년NGO),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어린이), 천초작은도서관(경전강의), 청암바라밀전법회(태극권수행), 한국명상진흥원(참선명상), 대구감로봉사회(호스피스돌봄), 희망드림(취약계층), 대행보현회 자비애빵(빵나눔), EM지구사랑 작은실천(환경보호), 마하보현승가회(이주민 지원),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불우이웃 지원) 등이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모든 승가결사체는 불교문화순례, 국제포교, 명상교육, 대학생 포교, 군 포교, 청소년 교정교화, 출가 진흥, 염불 의례, 호스피스 돌봄, 걷기 명상, 환경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묵묵히 전법교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법교화 활동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승가결사체가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불교의 길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며 "왕성한 전법교화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밝고 맑아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각 단체의 활동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네오 대표 여옥 스님은 "네오(NEO)라는 명칭은 희랍어로 뉴(NEW, 새로운)라는 의미가 있다.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인 출가를 안내할 것"이라며 "출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출가자 확대를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르마로드 대표 혜도 스님도 "화엄경의 인드라망 세계관에 기반해 생명평화 정신을 구현하겠다"며 "참선지도 및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 호감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금곡 스님 인정

중앙선관위, 자격심사 회의
'이의신청서'는 안 받아들여
금곡 스님, 사퇴 의사 밝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후보로 등록한 현 주지 지혜 스님과 전 낙산사 주지 금곡(정념) 스님 자격에 '이상없음'이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05차 회의를 열고, 신흥사 주지후보 자격심사의 건을 다뤄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홍진 스님은 사퇴서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제출했으며,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회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1시간이 넘게 논의했다.

이의신청서는 3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곡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금곡 스님이 지혜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교구선관위는 금곡 스님이 낙산사 주지 시절 경내 찻집인 다래헌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했다는 내용과 금품제공 행위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금곡 스님은 지혜 스님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해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두 후보 모두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처장 설도 스님은 금곡 스님이 접수한 지혜 스님의 주차장 미승인 임대 건에 대해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은 형식이 종령이므로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적용할 경우 추후 다수의 스님들이 자격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 임명된 본사주지의 경우 해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도 스님은 이어 3교구선관위가 금곡 스님에 대해 접수한 이의신청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과에 금곡 스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과 선거하라는 건 불법선거를 하라는 것과 같다. 종법을 준수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승려로서 종단을 신뢰하고 살아왔다. 이번 판단은 전국의 스님과 불자, 국민께서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보살되려면 육바라밀행을"

봉은사 정초기도 회향법회서
'육바라밀' 강조하며 대중법문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2월 18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정초 7일 산림기도 회향법회에 법사로 나서 사부대중에게 육바라밀 실천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육바라밀 실천 없이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행으로 분별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난해 3월 봉은사 백고좌법회에서도 마음의 분별심을 없앨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동시에 나쁜 마음도 생긴다. 부처님은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 중도를 추구하신 분"이라며 "중도를 추구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길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낮과 밤의 총 길이는 같다"고 예를 들며 "이처럼 행복과 불행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때가 다를 뿐이다. 행복이 오면 반드시 불행도 온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고 말했다. 고락(苦樂)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행복이 아닌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업장소멸을 통해 분별심을 내려놓은 존재인 보살에 주목했다. 스님은 "보살은 부처인 동시에 중생이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존재다. 분별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며 "보살이 이렇게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바라밀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분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보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살이 되라는 뜻"이라며 "육바라밀행으로 서로를 도와야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바라밀 중 특히 보시에 주목한 진우 스님은 "'내 것을 나눈다'가 아닌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 남이나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분별심을 내려놓기 위해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대중을 향해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을 업으로써 감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 인욕이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보시"라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가족에게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백양사 주지후보 무공 스님 단독 입후보

경쟁 없이 연임 확실시…2월 29일 산중총회 예정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인 무공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제18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9일 백양사 새 주지후보 입후보 결과 무공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무공 스님은 2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29일 백양사 산중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 현 주지인 만큼 자격심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강원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고불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열린 산중총회에서 백양사 주지후보로 선출돼 4년간 교구를 이끌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